

EUROPE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EUROPE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라이브 공연이 투어리즘에 미치는 경제적』 04호

◎ 작성취지

- [UK Music]에서 공연과 관광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보고서 분석을 통해 라이브 음악 산업이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함
 - 영국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연 산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 및 협업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국의 라이브 공연 산업과 관광 산업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임.
- ※ 유지연 (워릭대학교 문화정책 박사 과정)

◎ 작성순서

1. 「영국 라이브 공연이 투어리즘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 분석 개요」
2. 「영국 각 지역별 분석」
3. 「제안/시사점」

1. 『 영국 라이브 공연이 투어리즘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분석 개요 』

■ 조사 방법 및 범위

▶ 조사 방법

- UK Music은 영국 상업적 음악 산업의 이해를 대표하는 보호 기구로서, 송라이터, 작곡가, 아티스트, 뮤지션, 레코드 프로듀서, 음악 매니저, 레코드 레이블, 음악 출판업자, 라이브 음악 종사자, 음악 라이선싱 단체들을 대표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투어리즘 경제와 음악 페스티벌과 주요 콘서트의 기여 분석에 관한 보고서로서 UK Music이 영국 전체의 다수의 티켓 에이전트로부터 2009년 열린 음악 페스티벌과 콘서트의 250만 티켓 구매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Bournemouth University의 International Centre for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와 함께 자료 조사 및 분석 시행.
- 이 조사는 전체 관객 수용 인구가 5,000명 이상인 라이브 공연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 티켓 구매 데이터는 일대일 페스티벌 서베이, 투어리즘 리포트, 경제효과 평가서와 이미 발표된 음악 산업 매출 데이터와 함께 분석이 병행되었음.

▶ 조사 범위

- 이 조사는 유료 입장 콘서트와 음악 페스티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음악이 주요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인 공연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뮤지컬, 발레 공연, 오페라, 또는 길거리 페스티벌이나 카니발 등은 제외되었고, 라이브 음악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제한하였음.
- 실제 음악의 가치가 투어리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출 수치는 국내 투어리스트의 경우, 라이브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된 전체 여행 경비를 포함하였고, 해외 투어리스트의 경우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지출된 전체 경비를 포함하였음.

■ 음악 투어리즘과 경제적 수치 분석

▶ 음악 투어리스트

- 2009년 총 1,860만 명의 티켓 구매자 중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공연을 보러 온 투어리스트는 740만 명, 해외에서 온 관객은 357,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관객 수의 42%를 차지함.
- 음악 투어리스트는 대형 공연에서는 41%를,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48%를 차지함.
- 이 중, 콘서트 참가자는 총 1,480만 명으로, 이 중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공연을 보러 온 투어리스트는 580만 명이고 해외에서 온 방문자는 294,000명이었으

며, 이는 전체 티켓 구매자의 41%를 차지함. 페스티벌 참가자는 총 340만 명으로, 이 중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페스티벌에 참가한 투어리스트는 160만 명이고 해외에서 온 방문자는 59,000명으로 총 48%를 차지함.

- 국내 관객과 해외에서 온 관객의 비율은 총 91% 대 5%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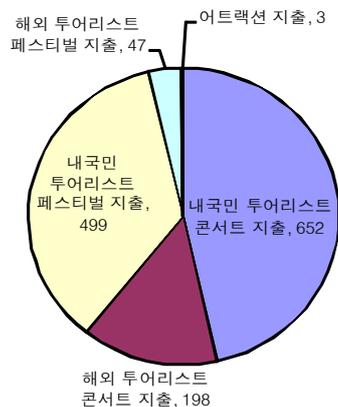
▶ 음악 투어리스트의 지출 집계

- 국내 관객은 공연에 총 11억 5천2백 파운드를 지출하였고, 해외 관객은 총 2억 4천 7백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총 14억 파운드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해외에서 온 음악 관객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나 총 2억 4천 7백만 파운드를 지출, 전체의 18%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됨.
- 이는 음악을 주요 목적으로 방문하는 해외 관객의 경우,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영국을 오는 해외 관광객보다 1/4 이상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됨. 모든 해외 관광객이 하루에 72파운드를 지출하는 반면 공연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해외 관광객은 평균 99파운드를 지출한다는 조사와도 일치됨 (Source: 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 (2009))

▶ 공연 종류에 따른 소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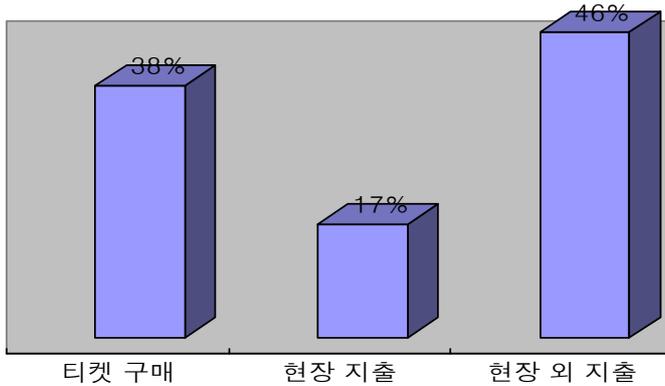
- 페스티벌 수보다 콘서트 수가 많기 때문에, 콘서트 관객의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나, 페스티벌 음악 관객이 평균적으로 콘서트 관객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나타냄.

음악 투어리즘 지출의 다양한 종류 및 규모 (단위: £ million)



▶ 지출내역 분석

-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에서 티켓 구매 지출은 38%, 현장에서의 지출은 17%, 현장 외 지출은 46%를 차지하고 있음..



2. 『 영국 각 지역별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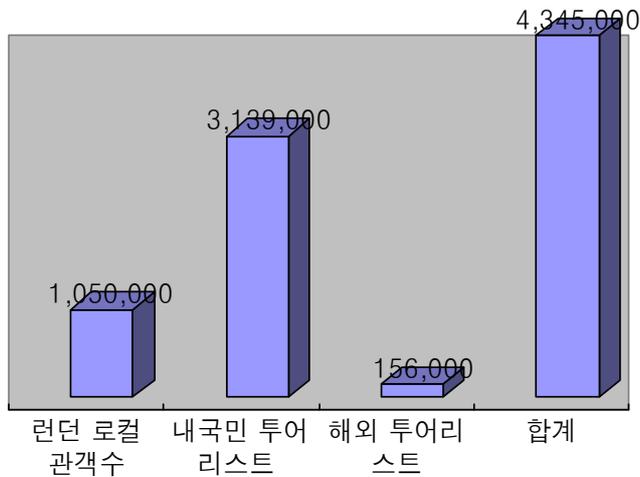
■ 런던 지역

▶ 런던 지역 개요

- 런던이 라이브 음악 투어리즘의 목적지로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대형 공연에서 로컬 음악 팬보다 음악 투어리스트의 비율이 1:3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 런던은 O2 아레나, 웹블리 아레나와 로열 알버트 홀과 같은 대형 공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이드 파크, 빅토리아 파크 등 증가하고 있는 야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 공원 수도 많음.
- 런던은 330만 명의 음악 투어리스트가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모든 음악 투어리스트의 43%를 차지하고, 영국 내에서 음악 투어리즘 지출의 31%를 차지하며 모든 지역에서 우세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

▶ 런던 관객 분석

- 런던의 로컬 관객 수는 1,050,000명이고,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런던으로 온 음악 투어리스트 수는 3,139,000명, 그리고 해외에서 온 음악 관객 수는 156,000명으로 총 4,345,000명의 관객으로 집계됨.



▶ 런던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런던시에 있는 다양하고 다수의 공연장수가 나타내듯, 음악 투어리즘의 대부분은 콘서트가 차지. 런던의 페스티벌 관객 수는 242,000명이 방문하여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런던 콘서트는 3,052,000명이 방문하여 93%를 차지.

▶ 런던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런던의 음악 투어리즘 지출의 83%를 콘서트가 차지함.
- 런던 페스티벌에 참여한 투어리스트들의 지출은 7,300만 파운드로 집계되어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런던의 콘서트 투어리스트 관객이 지출한 액수는 35,300만 파운드로 83%를 차지하고 있음.

▶ 런던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런던으로 방문한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3,145,000명으로 95%로 집계되었으며, 해외에서 런던을 방문한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157,000명으로 5%를 차지.

▶ 런던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런던에 온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총 39,500만 파운드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런던으로 온 해외 음악 투어리스트는 3,2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7%를 차지하고 있음.

▶ 런던 지역 경제적 가치

- 런던의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1년에 적어도 42,600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26,000만 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을 런던에 주며, 총 4,445개의

플타임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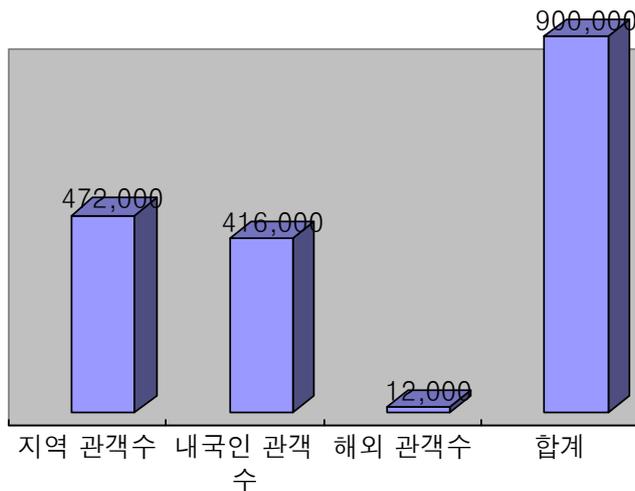
■ South East 지역

▶ South East 지역 개요

- 인구 840만 명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 이 지역은 Reading Festival, the Hop Farm Festival, Guilfest, the isle of Wight Festival, the Cornbury Festival, the Great Escape, Bestival, the Rewind Festival 등의 유명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지역임.
- South East 지역은 약 430,000명의 음악 투어리즘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영국 전체 음악 투어리즘의 6%를 차지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약 절반 이상의 주요 음악 이벤트 참가자가 이 지역 밖에서 방문한 관객임.

▶ South East 지역 관객 분석

- South East 지역 로컬 관객 수는 47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 수는 416,000명, 해외에서 방문한 관객 수는 12,000명으로 집계되어 총 900,000명을 기록.



▶ South East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South East 지역의 많은 음악 페스티벌로 인해 콘서트를 보러오는 투어리스트 관객의 세 배 이상이 페스티벌을 보러오는 투어리스트로 집계됨. 영국 전체의 음악 투어리스트의 21%만이 페스티벌 관객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무려 74%를 차지할 정도로 페스티벌을 보러오는 음악 투어리스트들의 비중이 높음.
- 콘서트를 보러오는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110,000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고 페스티벌을 보러오는 관객 수는 318,000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음.

▶ South Ea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일반적으로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콘서트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South East 지역은 영국의 총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페스티벌 투어리스트들은 총 9,600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콘서트 참가자들은 13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12%를 차지할 정도로, 페스티벌이 많은 지역 특성상 페스티벌과 관련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페스티벌인 Reading Festival의 경우, 2009년 조사에 따르면 90,000명의 관객들이 총 3,100만 파운드를 지출했고, 한 사람당 입장료를 제외하고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평균 209 파운드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됨.

▶ South East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들의 비율이 해외 투어리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들이 417,000명으로 97%를 차지하였고 해외 투어리스트는 13,000명으로 3%를 차지하였음.

▶ South Ea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지출 측면에서는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들이 1억 2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94%를 나타내었고, 해외 투어리스트들은 7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6%를 차지, 관객 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출을 함.

▶ South East 지역 경제적 가치

- 종합적으로, South East 지역의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적어도 1년에 1억 900만 파운드를 지출하였고,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2,2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으며 **486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됨.

■ South West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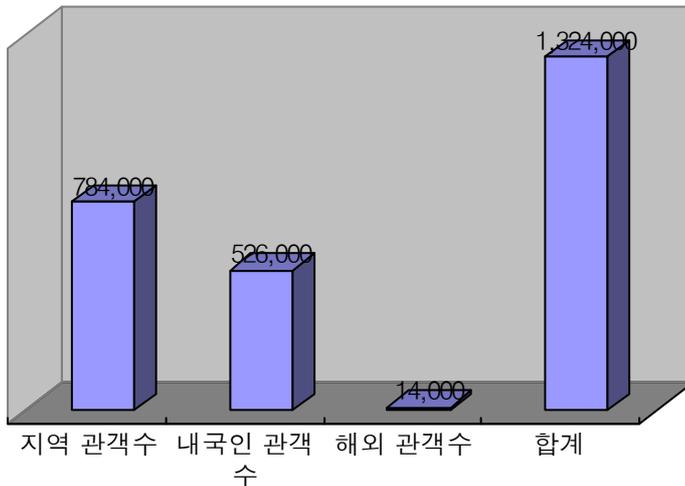
▶ South West 지역 개요

- 인구 520만 명으로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외 뮤직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지역으로 유명함. 이밖에도 Camp Bestival, T4 on the Beach, The Sunrise Celebration, the Eden Sessions, Greenbelt, WOMAD와 같은 행사가 열림.
- 이 지역은 약 540,000명의 음악 투어리스트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영국의 총 음악 투어리즘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 라이브 공연으로부터 걷히는 총

라이터 수입이 3년 내에 무려 2배 이상으로 오를 만큼 라이브 공연이 활성화된 지역임.

▶ South West 지역 관객 분석

- 로컬 관객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음악 투어리스트들을 훨씬 앞지르는 성향을 보임.
- 로컬 관객 수는 784,000명, 타 지역에서 온 관객 수는 526,000명, 해외에서 온 관객수는 14,000명으로 총 1,324,000명으로 집계됨.



▶ South West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이 지역은 콘서트보다 페스티벌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페스티벌 관객 수는 316,000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콘서트 관객 수는 225,000명으로 42%를 차지함.

▶ South We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일반적으로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콘서트 참가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영국 전체에서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수는 7%를 차지하나, 지출측면에서는 10%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보이고 있음. 이는 유명한 페스티벌이 많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 South West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가 526,000명으로 97%를 차지했으며 해외 관객은 14,000명으로 3%를 차지함.

▶ South We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해외 관객 수는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출 면에서는 6%를 차지할 정도로, 지

출의 비중이 높음.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들이 총 11,400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94%를 차지하였고, 해외 관객은 700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South West 지역 경제적 가치

- 전체적으로 South West 지역에서 적어도 12,100만 파운드를 1년에 지출하였고, 이는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3,5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총 869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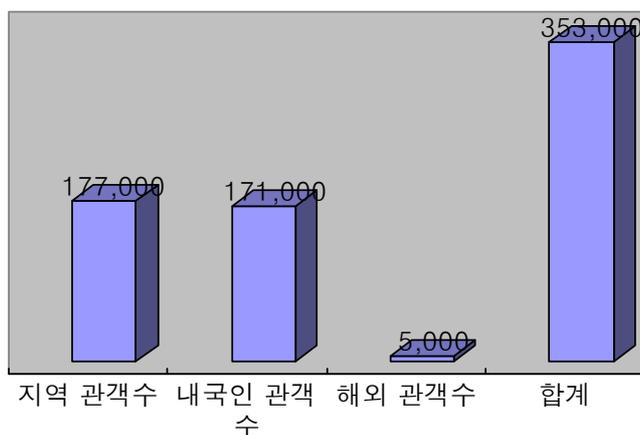
■ East of England 지역

▶ East of England 지역 개요

- 총 57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 East of England는 V Festival, the Big Chill, Latitude, the Secret Garden Party, Sonisphere, Cambridge Folk Festival 과 같은 유명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지역임. 176,000명의 관객 수가 집계되었고 이는 영국 내 전체 음악 투어리스트 수의 2%를 차지.

▶ East of England 지역 관객 분석

- 평균적으로, 주요 음악 이벤트의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온 음악 투어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음.
- 로컬 관객은 177,000명으로 집계되었고, 타 지역에서 온 내국인 관객은 171,000명, 해외 관객 수는 5,000명으로 집계되어 총 353,000명으로 기록.



▶ East of England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이 지역에서 페스티벌 관객이 전체 음악 투어리즘 인구의 88%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페스티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투어리스트수의 비율이 높았음. 페스티벌은 콘서트 관객보다 7배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하였

음.

- 페스티벌 관객 수는 총 155,000명으로 88%를 차지, 21,000명, 12%를 차지한 콘서트 관객 수와 비교되는 결과를 보임.

▶ East of England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페스티벌에서의 지출이 이 지역 전체 음악 투어리즘과 연관된 지출의 95%를 차지함. 이것은 영국 전체에서 39%를 차지하고 있는 페스티벌 지출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입증됨.
- 콘서트 지출이 200만 파운드로 5%를 차지하는데 비해, 페스티벌 지출은 4,700만 파운드로 전체의 95%를 차지.

▶ East of England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이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광객의 97%를 내국민 관객이 차지.
- 해외 관객이 5,000명으로 3%를 차지하는데 비해, 내국민 관객은 총 171,000명으로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East of England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해외 관객은 전체 관객 수에서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출측면에서는 6%를 차지하고 있고 수에 비해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국민 음악 투어리스트는 4,6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지출하여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해외 관객은 300파운드를 지출하여 6%를 차지하였음.

▶ East of England 지역 경제적 가치

- 전체적으로 East of England 지역에서는 일 년에 적어도 4,900만 파운드의 지출이 이루어졌고, 이는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1,5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총 **344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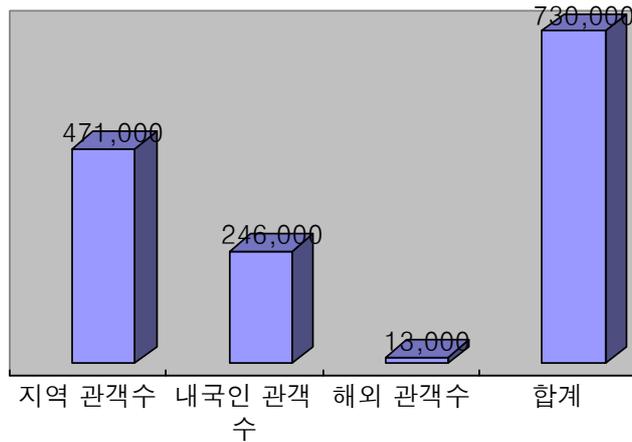
■ East Midlands 지역

▶ East Midlands 지역 개요

- 4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East Midlands 지역은 Summer Sundae Weekender, Bloodstock, Ska Splash, Download Festival과 같은 이벤트가 열림.
- 이 지역은 260,000명의 음악 투어리스트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영국 전체의 3%를 차지함.

▶ East Midlands 지역 관객 분석

- 평균적으로 로컬 관객이 타 지역에서 오는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의 수를 앞지름.
- 로컬 관객은 총 471,000명, 타 지역에서 온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는 246,000명, 해외 관객은 13,000명으로 총 730,000명의 관객이 집계됨.



▶ East Midlands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콘서트가 페스티벌 관객 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기는 하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콘서트와 페스티벌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비율이 매우 균등함.
- 페스티벌 음악 투어리스트는 관객 수는 125,000명으로 48%를 차지했으며, 콘서트 관객 수는 135,000명으로 52%를 차지하여 매우 비슷한 비율을 보임.

▶ East Midlands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페스티벌 관객이 평균적으로 콘서트 관객보다 지출이 많은 관계로, 콘서트 관객 수와 페스티벌 관객 수가 매우 균등한 비율을 보였음에도, 페스티벌 관객의 지출이 71%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페스티벌 관객은 총 3,800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71%를 차지하였고, 콘서트 관객은 1,600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29%를 차지.

▶ East Midlands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와 해외 관객의 비율은 전국적인 평균값과 거의 일치함. 즉,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가 대부분을 차지.
- 실제적 숫자로는,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가 247,000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고, 해외 관객 수는 13,000명으로 5%를 차지.

▶ East Midlands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해외 관객은 전체의 5%를 차지하였지만, 지출 면에서는 9%를 차지.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는 총 4,9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91%를 차지하였고, 해외 관객은 500만 파운드를 소비하여 9%를 차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객 수 비율에 비해 높은 비율의 지출을 보임.

▶ East Midlands 지역 경제적 가치

- 전체적으로 East Midlands 지역에서는 일 년에 적어도 5,400 파운드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 **1,2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과 30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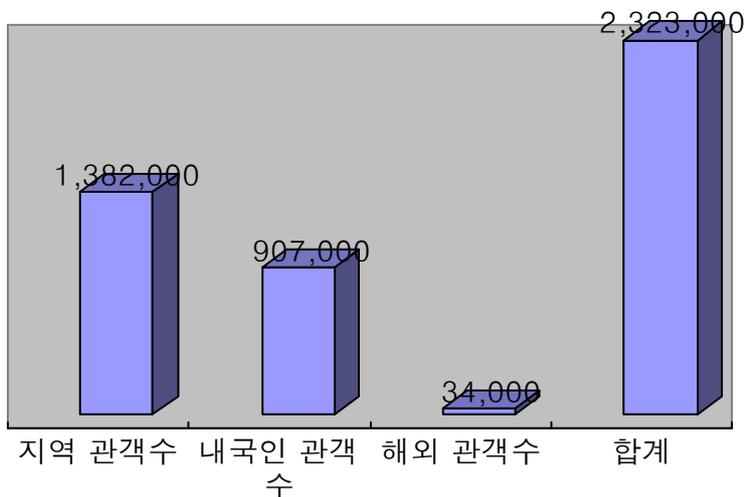
■ West Midlands 지역

▶ West Midlands 지역 개요

- 총 54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지역으로, V Festival, the Midlands Music Festival, Acoustic Festival of Britain, Global Gathering dance festival 등이 개최되는 지역임.
- 총 942,000명의 음악 투어리스트들의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영국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런던과 North West 지역 다음으로 음악 투어리즘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임.

▶ West Midlands 지역 관객 분석

- 평균적으로 로컬 관객이 타 지역과 해외에서 오는 관객의 수보다 훨씬 많음.
- 로컬 관객은 총 1,382,000명,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는 907,000명, 해외 관객 수는 34,000명으로 총 2,323,000명으로 집계됨.



▶ West Midlands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콘서트 관객이 83%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페스티벌 관객 수는 157,000명으로 17%를 차지하는 반면, 콘서트 관객 수는 784,00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

▶ West Midlands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페스티벌 관객은 17%만을 차지하는 반면 지출 면에서는 35%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임.
- 페스티벌 관객은 4,8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35%를 차지하고, 콘서트는 9,0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65%를 차지.

▶ West Midlands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가 908,000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반면 해외 관객 수는 34,000명으로 4%를 차지.

▶ West Midlands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가 12,9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해외 관객은 8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6%를 차지함.

▶ West Midlands 지역 경제적 가치

- 전체적으로 West Midlands를 방문하는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일 년에 적어도 13,800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이것은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 4,8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을 주며 1,202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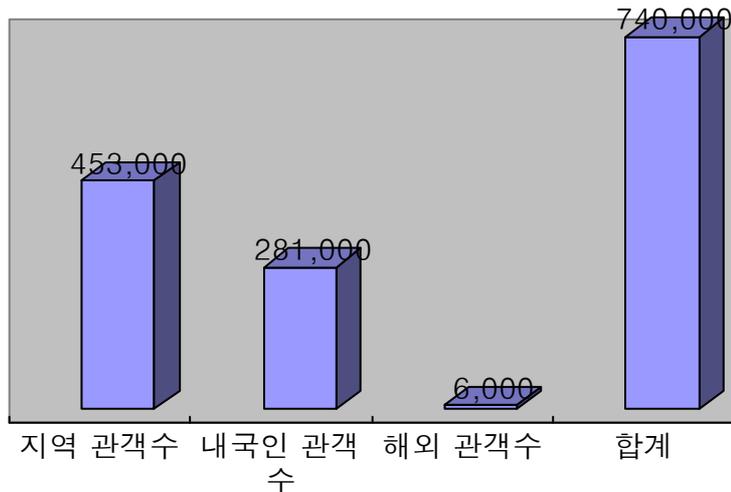
■ North East 지역

▶ North East 지역 개요

- 인구 250만 명의 지역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임. Evolution Weekender, INTRO, Split festival과 같은 이벤트가 열림.
- 총 286,000명의 방문자가 이 지역을 음악을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이는 영국 전체 음악 투어리즘의 4%를 차지함.

▶ North East 지역 관객 분석

- 평균적으로 지역 팬이 주요 음악 이벤트에서 대다수를 차지함.
- 로컬 관객은 453,000명, 이 지역 이외에서 온 관객은 281,000명, 해외 관객은 6,000명으로 총 740,000명으로 집계됨.



▶ North East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콘서트 관객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임. 이 지역은 특히 다른 영국의 지역들에 비해 콘서트 수가 페스티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페스티벌 관객 수는 12,000명으로 4%를 차지하는데 비해, 콘서트 관객 수는 273,000명으로 96%를 차지.

▶ North Ea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주목할 만한 사항은, 페스티벌 관객 수가 4%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면에서는 페스티벌의 지출이 11%를 차지.
- 페스티벌에서는 총 400만 파운드의 지출이 이루어졌고, 콘서트는 3,100만 파운드, 즉 전체의 89%의 지출의 이루어짐.

▶ North East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가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영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었음.
- 내국인 음악 투어리스트 수는 280,000명으로 98%를 차지한 반면 해외 관객 수는 6,000명으로 2%를 차지하였음.

▶ North Ea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해외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숫자 면에서는 2%를 차지하였으나 이 지역 역시 지출 면에서는 4%를 차지함.
- 내국인은 총 3,600만 파운드를 지출한 반면 해외 관객은 100만 파운드를 지출, 4%의 비중을 나타내었음.

▶ North East 지역 경제적 가치

- 총 North East를 방문한 음악 투어리스트들은 최소 3,500만 파운드의 지출을 했으며, 이는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 8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 및 221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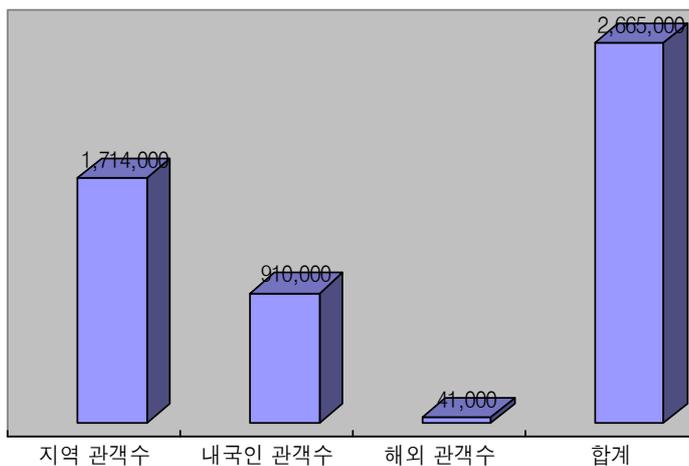
■ North West 지역

▶ North West 지역 개요

- 69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 MEN 아레나, Bolton 아레나, Manchester Central, Liverpool Echo 아레나와 같은 공연장을 가진 지역. 페스티벌로는 Liverpool Sound City, Mathew Street Festival, Africa Oye, In the City, Creamfields, Solfest 등과 같은 이벤트가 있음.
- 이 지역은 총 965,000명의 관객이 방문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음악 투어리스트 방문의 12%에 해당. 이 지역은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음악 투어리스트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임.

▶ North West 지역 관객 분석

- 평균적으로 로컬 관객 수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객의 수를 앞서감.
- 로컬 관객 수는 1,714,000명, 다른 지역에서 온 음악 관객 수는 910,000명, 해외에서 온 관객 수는 41,000명으로 총 2,665,000명으로 집계됨.



▶ North West 지역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페스티벌 vs 콘서트

- 이 지역에 있는 큰 규모의 공연장이 많기 때문에 콘서트 관객이 835,000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 반면 페스티벌 관객 수는 116,000명으로 12%를 차지하였음.

▶ North We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페스티벌 vs 콘서트

- 페스티벌 관객 수는 12%를 차지한 반면에 이 지역 역시 지출 면에서는 27%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페스티벌 관객의 지출 비중이 높음을 입증함.
- 페스티벌 관객은 총 3,5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27%를 차지하였고, 콘서트 관객은 9,6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73%를 기록.

▶ North West 음악 투어리스트 관객: 국내 vs 해외

- 내국민 음악 투어리스트는 922,000명으로 96%를 차지하였고 해외 관객 수는 43,000명으로 4%로 집계되었음.

▶ North West 음악 투어리스트 지출: 국내 vs 해외

- 해외 관객 수는 전체의 4%를 차지했지만, 지출 면에서는 7%를 기록하였음.
- 국내 음악 투어리스트는 12,300만 파운드를 지출, 93%를 차지하였고, 해외 관객은 1,000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전체의 7%를 차지.

▶ North West 지역 경제적 가치

- 이는 적어도 일 년에 총 13,200만 파운드의 지출을 음악 투어리스트들이 하였고 총 부가가치 측면에서 5,600만 파운드의 경제적 혜택을 이 지역에 주었으며 총 1,40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3. 『 제안 및 시사점 』

■ 제안

- 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 방문자가 내국민 방문자보다 평균적으로 1/4이상의 지출을 하였고, 숫자로는 전체 음악 투어리스트의 5%를 차지했지만 전체 지출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음악 투어리스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임.
- 현재 영국 정부의 관광 정책은 특정한 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테마 중심의 관광 단체를 만들어왔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라이브 음악 투어리즘 단체’를 창설하여 영국 내에서 음악 투어리즘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투어리즘 정부 당국과 지역 경제적 파트너들은 타겟 캠페인을 통해 독특한 음악적 강점과 문화유산을 자본화하는데 노력해야 함.
- 통합적인 ‘음악 투어리즘 맵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음악 투어를 계획하는 잠재적 투어리스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하며, 이것은 지역의 상징

적인 장소, 음악적 취향과 라이브 음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상호적 채널이 될 것임.

- 중앙 정부 기관들은 해외 연주자들이 영국에서 공연할 때 맞닥뜨리는 영국 비자 시스템 등과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여야 하고, 영국의 연주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공연할 때 부딪치는 문제들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최고의 라이브 공연 신은 결국 밑바탕이 되는 작은 규모의 인디 음악 신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작은 공연장들은 2003 Licensing Act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면제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좀 더 인디 음악신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성화 캠페인 성공 사례

- 영국에서는 라이브 음악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대표적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VisitBritain + EMI 파트너십

-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VisitBritain은 영국 뮤직 레이블, 아티스트들과 함께 링크를 공유해왔으며 다양한 마켓에 이 캠페인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오고 있음. 2007년에 VisitBritain은 EMI Music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의 록과 팝 뮤직 문화유산을 부각시켰으며 각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 영국 아티스트에 관한 정보를 VisitBritain 웹사이트에 제공하였고, 그 아티스트와 연관된 장소를 부각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였음. 방문자들이 사이트와 목적지를 검색할 때, 그들은 '휴가의 사운드트랙'을 제공하기 위해 그 장소들과 연관된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

▶ VisitEngland "England Rocks!" 캠페인

- 영국의 주요 캠페인으로 2007년도에 시작. 관광객들이 록과 팝 스타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130개의 장소가 지도에 포함됨. 장소들은 주로 탄생지, 락 스타들이 좋아하던 장소, 곡에 영감을 주던 장소, 앨범 커버에 나오는 장소, 잘 알려진 공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캠페인이 시작한지 첫 6개월 안에 광고 22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PR 보도를 창출시키며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평가됨.

▶ Belfast Music

- 벨파스트는 다른 기관들이 함께 공동으로 음악과 투어리즘을 둘 다 홍보하기 위

해 함께 단체를 성공적으로 조직한 사례로 꼽힘. Belfast Music은 Belfast 시 의회와 Culture Northern Ireland간의 파트너십이고 이것은 Northern Ireland Tourism Board의 후원을 받음.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음악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장소, 하나의 웹사이트로 가져오는 것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e-marketing 툴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Belfast Music은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음악 공연장과 그 주변의 관광객들을 가이드 하기위해 사용되고 있음.

▶ Visit Britain + AIF (Association of Independent Festivals) 파트너십

- 2009년에 시작하여, 유럽의 주요 18국에 25-35세 그룹을 타겟으로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음. 영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파운드화와 콤팩트한 지역 특성을 강조하여 VisitBritain은 영국의 장점을 강조한 캠페인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한 해외 관광객에게 20%의 디스카운트를 제공해주고 있음.

▶ AIF (Association of Independent Festivals) 자매 페스티벌 계획

- 2008년도부터, AIF는 “AIF Twin Festivals: A Cultural Exchange” 을 시작하였음. 이는 영국의 대표적인 페스티벌과 해외 페스티벌이 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자매 도시 콘셉트를 기반으로 페스티벌은 전 세계 국들 중에서 비슷한 콘셉트와 형식을 가진 페스티벌과 짝을 맺는 방식. 서로의 페스티벌을 각 지역에서 홍보해주며 아티스트가 교환되어 무대에 오르거나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 섭외에 공동으로 작업하기도 하며 투자를 위한 지방 음악 관계자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함.

■ 시사점

- 이러한 조사가 영국에서조차도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음악 투어리즘의 기여도와 사이즈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sation 조차도 ‘음악 투어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음악 산업은 공식적인 투어리즘 단체와 협업을 해온 전례가 거의 없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라이브 공연이 영국 투어리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라이브 음악 시장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 그 중요성을 주목해야할 것임.
- 한류의 열풍으로 K-Pop과 관련한 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음악 투어리스트들,

특히 해외 팬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 투어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영국의 조사는 한국 음악 시장에도 라이브 음악이 한국 투어리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줌.

- 또한 영국 내에서 여러 단체들과 공조하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라이브 공연을 관광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시키고 상호 소통적 방식으로 잠재적 관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